

도서관 이용안내

구분	이용 시간
일반자료실, 아동자료실, 디지털자료실	09:00~18:00
열람실	08:00~22: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휴관)

▶ 관외대출회원가입 안내

가 입 대 상 | 경상북도 거주자 및 영양군 소재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
대출권수 및 기간 | 1인 5권 이내, 14일
참 고 사 항 | 가족회원의 경우 다른 가족의 도서 대출 가능
자료 분실 및 훼손시 동일자료로 변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신청

영양도서관 홈페이지(이용자 마당→봉사활동신청) 혹은 경상북도 청소년 지원센터(dovol.youth.go.kr)사이트에서 도서관 자원봉사 가능한 시간에 직접 신청하고 봉사활동 후 확인서 발급 가능



주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번지
전화 (054)683-2829 팩스 (054)683-1718

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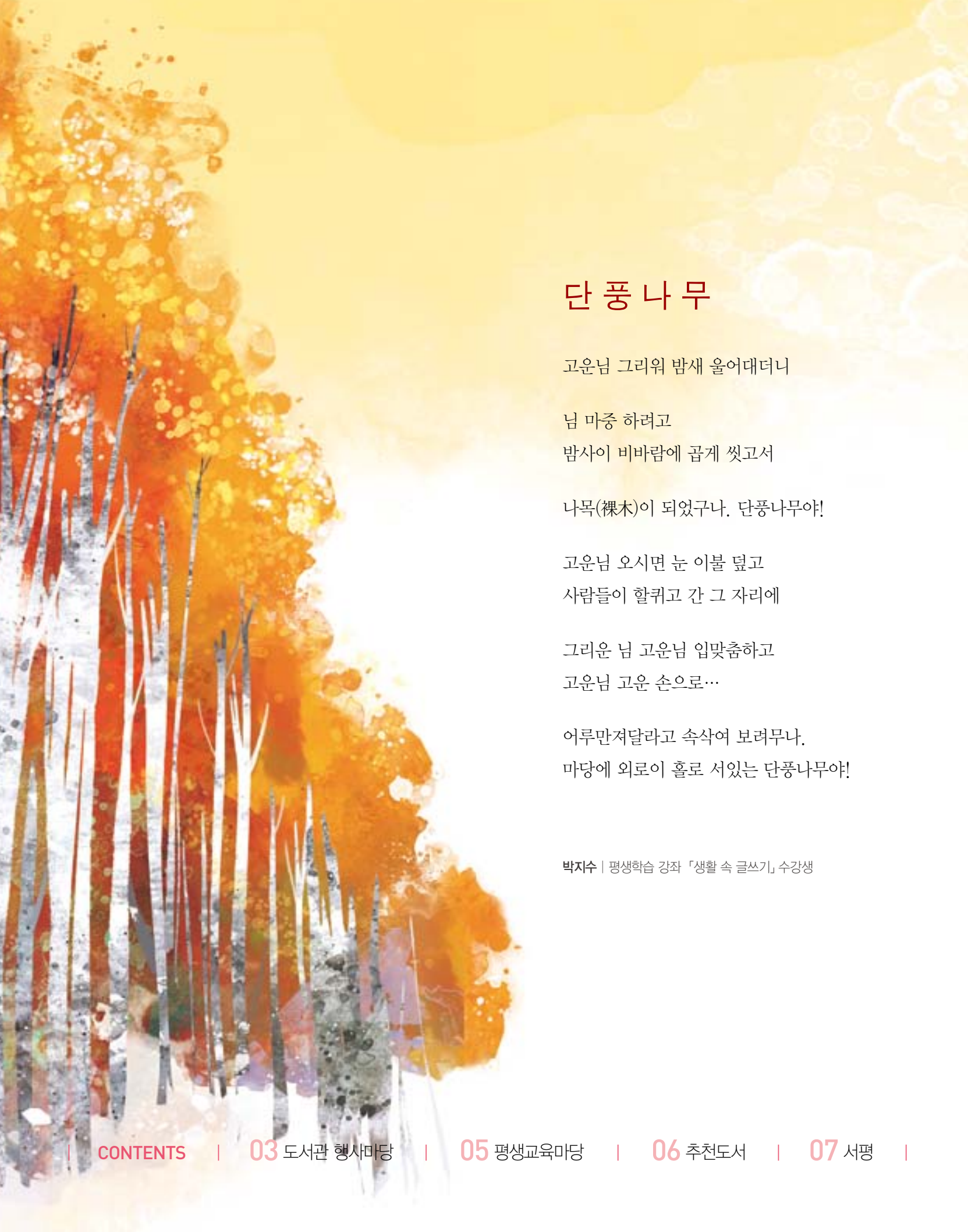
2012 제2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소식지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고비란 간찰, 편지 같은 것을 꽂아 두는 물건. 우리 도서관은 소식지 '고비'를 통해 앞으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엮어 갈 생각이다.





단풍나무

고운님 그리워 밤새 울어대더니

님 마중 하려고
밤사이 비바람에 곱게 씻고서

나목(裸木)이 되었구나. 단풍나무야!

고운님 오시면 눈 이불 덮고
사람들이 할퀴고 간 그 자리에

그리운 님 고운님 입맞춤하고
고운님 고운 손으로...

어루만져달라고 속삭여 보려무나,
마당에 외로이 홀로 서있는 단풍나무야!

박지수 | 평생학습 강좌 「생활 속 글쓰기」 수강생

다른 사람들의 글을 통해 자신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아라.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노력하여 얻은 것을 쉽게 얻어내라. 소크라테스

도서관 행사 마당



제48회 도서관주간



제48회 도서관주간 행사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곳, 여기는 도서관입니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에서 18일까지 개최되었다. 독서이벤트 '영양도서관은 ㅇㅇ다', 입체 토이북 만들기 체험, 독서퀴즈, 모범이용자표창, 이용자와의 만남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림책 원화전시



우리도서관 1층 로비에서 그림책 원화전시가 열렸다. 『지하철을 타고서』(고대영 글/김영진 그림)은 3월 6일부터 16일까지, 『무늬가 살아나요』(유문조 글/안윤모 그림)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시했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우리 도서관은 올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최하는 '2012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의 운영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입암초병설유치원, 원광어린이집, 석보초등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견학, 공연관람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여름독서교실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책 따라 떠나는 다문화 여행' 이란 주제가 선정되었다. 행사는 영양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7월 31일(화)부터 8월 3일(금)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9월 독서의 달



2012년 독서의 달을 맞아 추천도서목록 배포, 다독자 표창, 독서퀴즈, 독서이벤트 '이럴 때 이런 책', 가족사랑 티셔츠 만들기 체험, 수박 연필꽂이 만들기, 인형극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영양 책사랑 축제



2012년 11월 19일(월) 영양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영양교육청, 영양관내 초중등학교, 영양도서관이 함께 준비하였다. 영양도서관은 '우드캐릭터 책갈피 만들기 체험'을 했다.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업무협약(MOU) 체결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자 일월초, 수비초 학교도서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각 초등학교에서 입체북 만들기를 체험하고 인형극 '아기사슴 꼬지', '호랑이 형님' 공연을 진행했다.

평생교육 마당

▶ 평생교육강좌 운영

지역주민들의 자아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강좌를 연중 운영 중이다.

구분	대상	강좌명
상반기(3-6월)	일반인	생활 속 글쓰기, 퀘트
	유치원, 초등	이야기속으로 쓰~옥, 나는야 발명왕
여름방학특강(7-8월)	초등	나무모형나라, 리더십 스피치, 어린이 POP
하반기(9-12월)	일반인	민화교실, 생활 속 글쓰기, 역학, 퀘트
	어린이	어린이 인성교실



▶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참가

2012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김천에서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가 개최되었다. 우리 도서관은 영양군, 영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행복영양 일월산의 꿈을 가꾸는 영양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홍보하고,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추천 도서 READING LIST



100만 번 산 고양이 사노 요코비룡소, 2002



백만 번이나 죽고 백만 번이나 산 멋진 얼룩고양이가 있었다. 누구나 고양이를 사랑했지만 고양이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 고양이는 자기만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자기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평생의 동반자 하얀 고양이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림 같은 신화

황경신 | 아트북스, 2009

때로는 신화 속 주인공에게 편지하듯이, 때로는 그림과 관련된 신화를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는 황경신의 솜씨는 독자에게 편안함을 준다. 그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감상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글을 이끌어 나간다. 황경신은 모르지만 PAPER라는 잡지를 안다면 한번 읽어볼 책.



김수영

김수영 | 돌베개, 2004

학창 시절 문학 시간에 한번은 들어봤을 시인 '김수영'. 시로만 보고 이해했던 그의 정신을 이번엔 수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수필에는 시인의 현실에 대한 첨예한 관심과 참여 정신, 언어의 검열을 거부했던 자유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달려라, 아비

김애란 | 창비, 2005

『달려라, 아비』는 김애란의 단편소설집이다. 나와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항상 달리는 모습으로 희화화한 '달려라, 아비', 서로에게 무가치한 익명만이 전부라는 내용이 담긴 '나는 편의점에 간다', 같은 방에 사는 5명의 여자를 그린 '노크하지 않는 집' 등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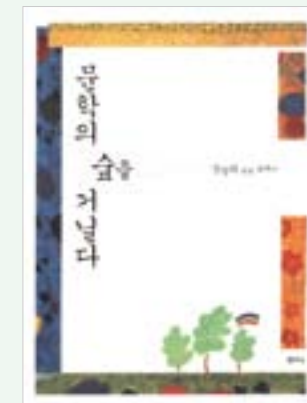
나는 '삶이 힘들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항상 '뭐에 비해서?'라고 묻고 싶어진다 시드니 J. 헤리스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 | 샘터사, 2005

지난 수시 입학 전형 때 어느 학생에게 "문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다. 잠깐 생각하더니 그 학생은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 어느 두꺼운 문학 이론책보다 더 마음에 와 닿는 말이었다. 맞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슬퍼도, 또는 상처 받아도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를 추구할 줄 알기 때문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저자는 서강대 영문과 교수이면서, 인지도 있는 수필가이자 칼럼니스트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는 그녀의 대표작으로, 그녀가 <조선일보>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라는 북 칼럼에 게재했던 글을 모은 책이다.

내용은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문학고전에서 뽑아올린 인상깊은 구절들이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도입에서부터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그리고 장(障)마다 사소하지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는데, 하나하나 곱씹어도 아깝지 않을 내용들이다.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이야기로 꼽히는 브라우닝 부부의 열애를 듣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제자 이야기부터, 영어 펜팔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다가 저자가 타인의 마음의 성역을 침범한 사건까지. 특히 각 부문별 내용들이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길이를 갖추고 있어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동안 간간히 읽기 편하다.

책을 읽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은 작금(昨今)의 현실에서 누군가에게 '이 책은 왠지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저자가 선정한 책들은 문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고전(古典)들이지만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런 책들을 일반인들의 입맛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저자의 재능은 놀라울 정도다.

정수연(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사서